

○● 특 집 도서관의 문화활동 의미와 전략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인문학 강좌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전략 -

이우정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장, seealso@naver.com



들어가며

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화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강박과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짊어져야만 하는 부담으로만 남겨진 것은 아닐까? 또한 예산이나 공간, 인력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제약들로 골칫거리이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현재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는 많은 문제들이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서관이 왜 문화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 전략이 함께 고민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래에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을 브랜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요인문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도서관다운면서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험, '인문학 강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

프로그램 1단계 - 원칙 : 길 떠나기에 앞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핵심적 가치는 '사색과 성찰의 공간', '배려와 나눔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독서실이나 공부방은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지만 도서관은 개념적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했으며, 도서관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키워 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가치 아래 제공할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 백화점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과 차별성을 가지고 타 도서관 프로그램과 가급적 중복을 피한다.
- *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적(知的)으로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 *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모든 프로그램은 자료(책, 잡지, DVD 등)와 독서 및 토론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 외부의 상업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도입한다.

프로그램 2단계

- 기획 : 길 떠날 계획하기

작년 말 『희망의 인문학』이란 책이 발견되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에 인문학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 세상과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는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마침 도서관 연장 개관과 함께 새로운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던 때에 『희망의 인문

학』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을 때 무릎을 탁! 쳤다. 우리가 가진 도서관의 가치인 ‘성찰’의 단초를 그 책에서 발견한 것이다.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직원들이 합의하였다. 문제는 ‘희망의 인문학’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도서관이 처한 조건과 지역주민들의 준비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방향은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 속 인문학’이라 정했다.

프로그램 3단계

- 섭외 : 길 떠날 동무 찾기

처음에는 강의를 기획하고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만만치가 않았다. 경험이 일천한데다 어렵게 주제를 정해도 섭외가 어려웠다. 이에 인문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인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제안을 하기로 하였다. 자신들의 학문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집단이다 보니 밖에서 보았을 때 콧대 높고 폐쇄적인 사람들로 비춰졌다. 과연 이름 없는 도서관에서 섭외가 가능할지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은 만나보기 전에 모르고, 일도 부딪혀보기 전에는 모른다. 결심이 서자 무작정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만나보기로 했다. 꼬불 꼬불 용산의 산동네에 어렵게 찾아가 만나본 사람들은 생각과 달랐다. 자신들을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에 무척 반겨주었고, 새로운 만남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다. 일은 일사천리

로 풀려갔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는 '생활 속 인문학'에 공감하고 다양한 주제를 제안해 주었다. 이제 남은 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생활 속 인문학의 발견

인문학은 생각의 힘!

인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원한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루해지고 진부해져버린 우리들의 삶, 상투적이고 통념에 익숙해진 굳어버린 생각들... 하지만 인문학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공부, 생명, 철학, 예술 등 우리들에게 이미 진부해진 이런 단어들 속에 신선한 삶의 자각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의 활동 속에서도 매일같이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는 기쁨! 문학, 예술, 사상, 사회학, 철학 등 인문학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 사회를 보는 새로운 필터를 준비해 봐요.

● 강의일정표

회수	일자	강사	주제
1강	4/11	고미숙	공부: '공동체와 공부'(왜 우리는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2강	4/18	고병권	화폐: '화폐, 공동체, 사랑'(왜 우리는 '돈 없이 살 권리'를 하지 않는가)
3강	4/25	박성관	생명: '태초에 돌연변이가 있었다'(오해로 가득 찬 다윈의 진화론을 다시 보기)
4강	5/02	채 운	예술: '풍경화의 정치학'(풍경의 소유와 풍경의 생산)
5강	5/09	박정수	색스: '성(性)의 정치학'(왜 우리는 억압을 욕망하는가)
6강	5/16	권용선	문학: '무소의 사상과 문학'(이오정전의 정신승리법과 삶의 주인 되기)
7강	5/23	고봉준	아주: '국경을 넘는 사람들'(소설을 통해 보는 아주노동자의 문제)
8강	5/30	이수영	행복: '행복의 윤리'(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과연 좋은 것인가?)

*자세한 강사 프로필은 동대문구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프로그램 4단계

- 모객 : 우리의 길 알리기

가장 두려운 부분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초차 사양학문이라고 기피하는 인문학. 대학에서도 이름 난 인문학자의 강의라고 해도 좌석을 채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과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지 걱정이었다.

목표는 40~60명. 우선은 프로그램 대상이 일반인이긴 하지만, 야간 프로그램으로 평소 도서관 접근하기 어려운 직장인들, 대학생들을 중심 타깃으로 정했다. 중심 타깃에 맞춰

인근의 경희대, 고려대, 카이스트에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한 직장인들이 인문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알려나갔다. 그리고 지역신문, 케이블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해 언론사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더불어 기존 도서관 회원들에게 이메일 마케팅 도구를 통해 전체 홍보를 진행했다.

반응은 더뎠다. 그러나 꾸준했다. 특히, 전업주부들이 마음 놓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시간 동안 보육사를 임시 채용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홍보하였다. 2주간의 기간동안 어느덧 40명 정도가 모였다.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통했는지 폐강될까 조마조마하고 20명이라도 채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걸까.

프로그램 5단계

- 진행 및 평가 : 길 다지기

진행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놀랐다. 중심 타깃은 직장인, 대학생이었지만 실제 수강생은 고등학생, 전업주부, 교사 등 다양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한자리에 모여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는 것에 사서도, 강사도, 수강생도 놀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시작 전에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 분들도 생기고, 수강생들끼리 강의 후 자연스럽게 뒷풀이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주셨다. 다음은 항상 건의와 불만이 주를 이루는

게시판에 올라온 인문학 강의에 대한 수강생의 글이다.

“어제 고미숙님의 쿵푸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적과 자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몇몇 강좌는 도서관이면 으레 진행해야 할 특색 없는 것들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강좌는 공부의 공간,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은 강좌도 정말 기대됩니다. 강의를 준비하신 도서관 관계자 분들 고마워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서관과 이용자의 새로운 만남이자 이야기가 만들어 질 통로 말이다. 이걸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만의 평가가 아닌 듯싶다. 강사였던 고병권 씨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문학이 소통할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긍정적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프로그램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지역 도서관 같은 공간이다. 인문학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 평가했으니 말이다. 우리가 바라던 가장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이자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으로의 길이 다져진 것이다.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9월 8일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장자의 철학을 새롭게 해석한 책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의 저자 특강이 있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장자의 철학이 ‘道行之而成’(도행지이성)의 철학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장자에 따르면 길은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도서관계의 문화 프로그램의 길도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만큼 새로운 길이 만들어 질 것이다. (출처)

* 이 글은 함께 근무하는 이학건 사서과장, 김정규 사서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